

[1단계] 천천히 그냥 읽기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며 전체 내용 읽기

[2단계] 중요 내용 살피기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치기
중요한 내용에 줄 긋고 댓글달기

[3단계] 내 정보로 만들기
신문 스크랩 학습지에 내가 관심 가는 정보 적기, 투자 근거 적기

삼백 공업, 이대로 무너지나?



1950년대를 책임졌던 삼백 공업

우리나라는 1950년대 미국 원조 물자인 밀가루, 설탕, 면화 등에 의존했다. 정부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몇 가지 공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백 공업이다. 삼백 공업은 원료의 90퍼센트 이상을 원조물품이나 수입품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전후 경제를 복구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삼백 공업의 원료는 미국의 값싼 농산물로 충당되어 국내의 밀, 면화 생산이 타격을 입었으나, 원조 물자를 배정받아 가공·판매했던 자본가들은 순식간에 시장을 독점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수지와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줄이게 되었고, 1957년 미국이 무상 원조를 급격히 줄이고 유상 원조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출처 : 석혜원,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경제사, 미래의창(2008), 34~37

경공업, 새로운 전략이 되다

기업은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섬유, 신발, 가발, 의류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며 성장하고 있다. 신발, 가발, 옷과 같은 제품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 유리한 산업이고, 저렴하게 생산된 경공업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본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노동력은 풍부하다. 따라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가계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외수출공업단지 가발공장(제공: 국가기록원)

기업들의 성장

정부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세금을 내려 주고, 기업이 여러 나라에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1962년 금성사가 한국산 라디오를 미국과 홍콩으로 수출하였다. 금성사는 1961년 한국 최초의 선풍기, 한국 최초의 전화기 등을 선보이며 성장해갔다. 1946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공업사'는 정비 사업을 통해 익힌 자동차 조립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했다.

정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증산·수출·건설, 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자

1962년 1월 5일 정부는 '사회경제적 악순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 기반구축'을 기본 목표로 하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 경제의 특징은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반면 값싼 노동력은 풍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우고, 10년 안에 국가경제의 규모를 2배로 키우기 위하여 매년 7.1%씩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특정 부문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1961년에서 1969년에 걸쳐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등의 특수은행을 설립했다. 또한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67년과 1968년에 걸쳐 대구은행, 부산은행, 충청은행, 광주은행 등의 지방은행도 설립했다.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과제는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과 철도, 도로, 항만 등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다. 제1차 계획에서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은 정유, 비료, 화학섬유, 시멘트, 종합제철, 철도, 차량, 조선, 자동차, 기계제작 등과 같이 40여 개에 이른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7.8%로 계획을 초과하였지만 기초 공업의 빈약, 투자 자원 체제의 미비, 식량 자급의 실패, 소득의 편중적인 분배 등이 문제가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제공: 국가기록원)

출처 : 석혜원,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경제사, 미래의창(2008), 51~54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의 목표가 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은 그 보다 한 단계 높은 공업화를 통하여 수출을 늘리 것이다.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화학, 철강, 기계공업 같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의 진흥 및 기술 수준과 생산 향상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 선언했다.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고, 수출산업을 늘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 산물의 비중을 줄이며, 일자리를 늘려 국민 소득을 높인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검·절약·저축'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끌어내었다.



출처 : 석혜원,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경제사, 미래의창(2008), 54~55

외화를 벌기 위한 노력

독일 파견: 1954년 국비유학생으로 독일에서 유학했던 백영훈 교수와 독일 경제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1억 5,000만 (약 3,000만 달러)를 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도 한국을 위해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아 한국인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독일로 파견하게 되었다. 1963년 12월 21일 한국인 광부 367명이 독일로 떠났으며 1978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광부는 7,800명에 이른다. 간호사 파견은 1962년 20명을 시작으로 1976년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서독으로 건너갔다. 1968년 1인당 국민소득이 169달러, 국민총생산(GNP)이 52억 달러인 가운데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연간 국내로 보낸 돈은 약 5,000만달러였다.

베트남 파병: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참전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1억 5,000만 달러의 차관과 베트남 내 건설 사업 참여권, 미국 내 한국상품 수출 증대 약속을 받았다. 1966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얻은 수익과 군인, 기술자들이 받은 인건비는 약 6억 4,000만달러, 베트남과의 무역과 전쟁물자 납품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약 2억 2,000만 달러에 달한다.

출처 : 석혜원,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경제사, 미래의창(2008),



경제신문 포트폴리오

학교 학년 이름 :

학습지 001
1960년대

1) 내가 관심가는 정보들 : 신문을 읽고 중요 정보를 요약하기

기사	요약 내용	관련 기업
1		
2		
3		
4		
5		
6		

2) 사실과 의견 정리하기

① 알게 된 점(사실) :

② 나의 느낀 점(의견) :

3) 실천! 주식 투자 : 투자할 기업 선택하기 (1,2 질문이 완료되어야 투자 가능)

나의 자본금 :			
투자할 기업	현재 주가	구입 수량	필요 금액
은행 (이자 30%)			
총 합계			